상진 스님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종단 중흥"

태고종 시무식 · 신년하례 봉행
1월 6일 종로 불이성 법륜사서
발전 기여 대중, 공로패 등 수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6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불이성 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열린 '을사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고종 종도들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 중흥과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6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불이성 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을사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호명 스님, 원로의원 일운 스님과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교육원장 재흥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님, 중앙선관위원장 구산 스님, 법규위원장 정운 스님, 사회복지원장 성해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종정예경실장 동허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불·법·승 삼보에 통알삼배로 신년하례를 한 태고종 대중들은 원로스님과 참여대중에게 신년하례를 진행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독려했다.

상진 스님은 "옛말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충실하고 진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을 가장 안정시키고 화합하게 만든다 말"이라며 "태고종은 종교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소이연(所以然)인 소외된 이웃의 구제와 사회 공통선 실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올해는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필두로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종단 차원에서 해나갈 것"며 "부디 종단 주요소임자들과 종무직원들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선조사님들의 지혜를 담아 다시 도약하는 종단의 날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매일 수행 정진 △상호존중하며 화합 △자비 실천 △환경보호 △매사에 감사할 것 등 다섯 가지 조항을 실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호명 스님은 "을사년 새 아침을 맞아 태고종도와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한 해를 만들자"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삶을 밝히며 진정한 행복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계엄 사태에 대해 엄중히 비판하며, 위기 속에서 길을 찾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시각 스님은 "어느 때보다 혼란과 불안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우리 불자들이 하루 빨리 사회가 정상화되도록 자리이타의 솔선수범을 보일 때"라며 "부디 대한민국 모든 이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과거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 일류시민으로 나아가는 재도약의 2025년이 될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고종 종도들은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종단 중흥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이에 앞서 상진 스님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스님, 전법사, 재가자들에게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며 공적을 치하했다.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 성파 종정예하 예방

1월 8일 통도사 서운암서…종정예하 "발전하는 언론 되길"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1월 8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명우 본지 대표,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1월 8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불교 언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날 예방은 한명우 대표의 취임인사 차 이뤄진 것으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도 함께 했다.

성파 대종사는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으며, 그 근본을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고로 불교언론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은 신행포교 전문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근본에 충실해 발전하는 언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법산 대종사는 "지난해 12월 18열 열린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 행사를 신문을 통해 접했다. 무엇보다 AI·뉴미디어 전법 비전에 대한 한명우 대표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면서 "현대불교신문의 미래가 밝다. 더욱 더 정진해 정법을 구현하는 언론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명우 대표는 "종정예하와 법계위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뉴미디어를 통한 언론 포교·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대충대종사 탄신 99주년 봉축법요식

1월 4일, 총본산 구인사서 봉행
1만 사부대중 가르침 계승 다짐



천태종은 1월 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99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불퇴전의 정진과 전법도생에 매진하며 천태종의 중흥을 이끈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의 탄신 99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가르침과 사상, 업적을 기리기 위한 법석이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99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도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의장 화산 스님, 감사원장 용구 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과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도용 종정예하는 법어를 통해 "불법 인연 무량한 소백산 연화성지에 성인이 탄생하시어 천태의 정법을 크게 펼치셨으니 인연중생 기쁨 속에 찬탄하는구나. 언제라도 인자하신 자비의 손길 관세음보살이셨으니 숙세의 크신 원력 이 도량에 꽃피우셨네. 거룩한 가르침 소중하게 받들며 일승묘법의 바른 길로 중생을 인도해야 하리라. 모든 공덕을 만 생명에 회향하여 인류의 평화와 국운융창을 일심발원하며 해탈성불의 길 힘차게 정진하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에서 "대충 대종사는 한량없는 보살심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과 투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혼탁한 사바세계에 자비광명을 비추시며 불자다운 삶, 그 가운데서도 천태 불자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다"며 "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천태종지를 널리 전법하시고 종단의 외형과 내실을 두루 갖추는 데 원력을 다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종단과 불교 발전, 국민 화합과 소통,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충 대종사는 1945년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각고의 정진으로 깨달음을 증득했다.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한 후 대중교화와 종단 교세 확장에 힘썼으며,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 조실에서 열반했다.

신중일 기자

정원주 중신회장 "마애불 立佛에 진력을"

1월 9일, 진우 스님 신년하례


진우 스님은 정원주 중신회장을 열암곡 마애불 건립위원 단장으로 위촉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구성원이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데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정원주 회장을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건립위원단장'으로 위촉했다. 스님은 "열암곡 마애불의 조속한 입불(立佛)은 국운융창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부처님 자비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 사회 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중앙신도회가 마음과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가진 호국불교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중앙신도회 불자들이 이웃들에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설법을 해준다면 사회 안정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법과 포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열암곡 마애불 건립위원단장'이라는 직책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한국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화답하며 "중앙신도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명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법·포교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이 정한 기본 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4. 12. 16(월) ~ 2025. 02. 07(금)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5. 02. 14(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재가자로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